

#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 주부의 현재와 미래의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변인

The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ies of the Middle Aged Housewife Living in the  
Urban Apartments and the related variables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 전진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이연숙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Master : Jin You Je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f Korea University  
Professor : Yon Suk L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and the future leisure activities of middle aged housewife living in the urban apartment. The data for the analysis are collected by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for 220 housewife who are forty's living in the urban apartment are analyzed using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has resulted following major findings.

- 1) The current leisure activity participated the most frequently by the housewife is the family-oriented activity. The religious-sociable activity is found to be the least frequently participated by the housewife. 2) The leisure activity which the wife want

\* 연락처: 전진유(jun-jinyou@hanmail.net)

to the most frequently participate in the future is also family-oriented activity. The self-developing activity is the one which the wife want to least frequently participate in the future. 3)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urrent leisure activities of the respondents are the occupational type of husband and wife, the educational level of wife, the age of the lastborn child and the leisure expenses. 4)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future leisure activities of the respondents are the occupational type of husband, the educational level and the occupational type of wife, the age of the lastborn child and the leisure time per week.

key word : the current leisure activities, the future leisure activities

## 1. 서론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가정에 편리한 가전제품, 기구, 설비가 보급되고 가족구조가 변화되어 자녀출산 및 교육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주부들의 생활시간 가운데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주부들은 점차 자신의 건강 생활을 비롯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자유시간의 증감과 관계없이 여가를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차주은, 1995).

현대에는 자녀수가 감소되고 자녀간의 터울이 좁혀짐에 따라서 중년기·노년기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중년기 주부는 자녀 양육의 역할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증가되게 된다. 이에 따라 증가된 자유시간을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며 새로운 방향으로의 인생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에 당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년기는 다른 어떤 생애발달 단계보다 여가시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년기 주부의 여가생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여가 생활은 다양하지 못하고 여가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조선일보, 2002. 10. 11).

우리 나라의 경우 주부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80년대부터이다. 여가활동의 실태와 더불어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의 동기 및 태도, 여가장애, 생활만족도, 여가만족,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년기 전기의 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다룬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이 나이가 들어 미래에 노년이 되었을 때, 참여하고자 하는 여가활동을 예측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 40대 중년기 도시주부의 현재 여가 활동참여와 장차 희망하는 여가 활동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가 현재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이끌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중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40대를 대상으로 한 여가교육과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가의 개념과 유형

#### 1) 여가의 개념

첫째, 시간 개념으로의 여가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생리적 기능 유지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실제로 Parker(1972)와 Brightbill(1961)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여가를 정의하는데 있어 가장 설득력이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여가는 '노동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간적 개념의 여가는 단순히 자유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인간 성장과 계발을 위한 여유(餘裕)로 의미가 확장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까지도 포함한다. 여가를 시간으로 정의내림으로써 노동과 여가를 명확하게 대비시켜 주고 여가를 손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활동 개념으로의 여가를 살펴보면 Dumazedier(1974)는 여가를 '개인, 직장, 가정, 사회로부터 의무에서 해방되었을 때, 휴식을 위해서, 이익과 관계없이 지식과 능력을 키우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창조력을 발휘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 내렸다. 이러한 관점은 여가를 자유시간에 일어나는 개별활동으로서 본다는 점에서 시간으로 보는 관점과 확연히 구별된다.

셋째, 의식 개념으로의 여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여가를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끼게 하는 마음의 상태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상태를 그리스 시대에는 명상의 상태로 규정하였고, Csikszentmihalyi(1975)에게는 몰입(flow)상태로, 동양에서는 선의 상태를 의미하였다. 여가는 시간이나 활동과 무관하게 서두르지 않는, 고요한 상태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러

한 개념은 그리스의 고전적 개념(classical leisure)의 여가에서 출발한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는 여가를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을 비운 심리적 상태 또는 경험의 상태(a state of mind/experience)'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온 순수한 여가의 개념으로, 여가는 무엇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인생발달 단계 중에서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는 중년기 여성의 여가활동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자유시간에 일어나는 개별활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가를 활동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여가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서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활동 개념으로서의 여가를 여가활동,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여가시간이라고 구별하기로 한다.

#### 2) 여가의 유형

여가 유형 분류에 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Kaplan(1960)은 여가 활동 유형을 최초로 연구하였으며 주관적 관점에서 여가활동을 사교활동, 게임과 운동, 예술, 동적활동(movement), 비동적활동(immobility)의 다섯 범주로 분류하였고, 다시 사회심리적 개념에 근거를 두어, 주관적으로 규정된 여가 분류법을 1975년에 제안하였는데, 이 때에는 신체적 활동, 지적활동, 예술적 활동, 사회적활동, 실용적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De Grazia(1962)는 모든 활동을 능동적/수동적, 참여자/관람자, 개인적/사회적, 실내/실외, 가내/가외, 좌식/입식의 여섯 가지 양극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祖父江孝男(1974)은 여가활동을 활동 참가자의 단위(고립성-집합성)의 측면과 여가활동

에 의하여 만족을 얻는 장(개인성-집합성)의 함수적 관계에 의하여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넷째, 김외숙(1991)은 여가활동 유형을 도시기혼 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요인 분석하여 가정지향활동, 자기개발활동, 사교 활동, 종교활동·사회참여활동, 소일활동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한국관광공사가 1985년 국민의 여가활동의 실태 분석시 설정한 여가 유형은 크게 행락 및 관광부분의 11개 활동, 모임, 사교부분에 10개 활동, 감상·관람 부문에 11개 활동, 스포츠 부문에 23개 활동, 취미·교양·창작 부문에 12개 활동, 놀이·오락 부문에 5개 활동 등 총 73개 여가활동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외숙(1991)의 분류에 따른 가정지향활동, 자기개발활동, 사교 활동, 종교 활동·사회참여활동, 소일활동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중년기의 정의와 중년기 여가활동의 의미

개인에게 있어서 중년기라 함은 정확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저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기준의 적용도 대상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일반적인 경우 35세에서 70세 정도까지를 중년기로 보고 있으나 미국 인구 통계국에서 설정한 중년기는 45세에서 64세까지이다. 연령을 기초로 하여 보면 Sheehy(1976)와 Gould(1972)는 35세-45세를 중년기로 보았고, Brim(1976)은 40세-64세를 Buhler(1968)은 45세-60세, Hurlock(1974)는 40세-65세, Papalio와 Olds(1978)는 40세-60세, 그리고 김남순(1984)은 40-59세를 중년기 연령으로 보았으며(장하경, 1991에서 재인용), 김명자(1993)도 생활연령과 가족생활 주기 개념을 고려하여 40세-59세 사이의 연령을 중년기로 정의하였다.

여성의 중년기에 대한 관심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성인 후기 인구의 확대, 전 생애에 걸친 발달을 강조하는 시각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성인기 발달과정에 있어 중년기는 결정적 시기이며, 내적·외적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당면문제가 있다. 중년기 신체 변화는 체력의 저하로부터 신체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것은 사고나 성인병·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심하게 받게됨을 의미한다. 체력의 저하에 따른 신체의 나약함을 새로이 감지하게 되면서 건강을 염려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한다. 특히 자녀의 학업에 관심이 커지며, 자녀의 독립과 폐경이라는 생물학적 변화와 관련하여 이 시기는 종말인 동시에 시작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40대 중년기 부모들은 종교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기 자녀를 두어 자녀의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재평가할 심적인 여유가 없으며, 자녀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정신적·신체적으로 긴장되고 지쳐있게 마련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50대는 자녀가 결혼 등으로 독립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이에 따른 상실감과 실망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 두시기의 발달과업과 관심사가 상이하므로 중년기 연구에서 40대와 50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김명자, 1993).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주부중 40대 주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의 경우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중년기는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현대에는 자녀수의 감소와 자녀간의 터울이 좁혀짐에 따라 여성의 가정생활 주기가 변화하여 중·노년기는 필연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Hayes와 Stinnet(1971)는 중년기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으로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증가, 자유의 증가, 그리고 자신의 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들었다(유지명·김명자, 1996).

중년기에는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어 여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식이 커지게 된다. 중년기 여성은 이러한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약화와 쇠퇴,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자아상실감, 무력감,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이 성장하여 육아의 부담이 덜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시기이므로 그 동안 돌보지 않았던 자신을 돌아보아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얻게 된다.

### 3. 여가활동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변인 고찰

40대 도시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른 생활 주기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 연구도 포함시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도시 기혼 여성의 여가활동을 연구한 김외숙(1991)의 연구에서는 TV·라디오 청취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소일활동 참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 지향 활동, 사교활동, 자기 개발 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를 연구한 임정빈 등(1995)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여가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 것은 TV 시청으로서 이 활동은 거의 매일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일 활동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교 활동, 가정지향 활동, 자기개발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외숙(1991)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사교활동참여도가 가정지향활동 참여도보다 높게 나타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가사노동이 감소함에 따라 사교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는 중년기의 특성으로 보았다. 중년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1997)의 연구에서는 소일활동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지향활동, 사교활동, 종교활동, 자기개발활동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생산직 기혼 여성에 대한 조희금(1993)의 연구,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를 조사한 홍성희(1991)의 연구에서도 시간 소일적 여가활동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hite(1975)는 연령이 야외 여가활동 참여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고, 김외숙(1977)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도에 있어서 보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amme(1979)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의 종류와 참여빈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전반적인 여가활동 참여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가활동의 종류에 따라 몰두를 많이 해야 하는 활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반면 다소 몰두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arker(1976)는 교육수준은 여가에 대한 관심사와 활동의 범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White(1975)의 연구에서도 교육에 따라 야외여가활동 참여에 차이가 있었으며, Ragheb(1980)은 교육이 여가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Wipper(1988)는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여가활동의 양이 많고 질이 높으며 형태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김외숙(1977)은 가족의 여가활동 필요성 인식과 참여빈도에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중년기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도를 조사한 이정우(1997)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

정지향활동, 자기개발활동, 종교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교육수준은 여가활동 참여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 적극적인 경향이 있고,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활동에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이에 있어서 몰입의 차이를 연구한 Roberts 와 Cosper(1987)는 직업의 사회적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즐기는 놀이에 있어서 전략의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외숙(1991)의 연구에서는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장애에 있어서 취약 집단이라고 하였다. 홍성희(1991)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관리직, 자본가 등에 종사할수록 주부의 여가의 참여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부인의 취업 여부와 남편의 직업에 따라 여가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특히 기혼 여성의 경우 동거하는 가족수와 자녀수가 많을 경우,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 가족들을 위한 가사노동과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반면 중년기 이후에는 가사 노동원으로 작용하던 자녀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가족수가 감소함으로써 이들의 여가 추구를 촉진시키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시간은 주부의 여가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 중에서 막내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성희(1991)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막내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며 여가활동참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이며, 따라서 막내 자녀

연령은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은 많은 연구에서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White(1975)의 야외 여가활동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소득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현주(1985)의 연구에서는 비취업 주부의 여가활동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계의 총소득으로 나타났다. 또 김외숙(1991)의 연구에서는 가계총소득이 낮은 여성이 여가생활에 있어 취약집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홍성희(1991)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 개발적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변인인 동시에 여가활동 선택 시 개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는 지표가 되므로 개인의 여가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본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1)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이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사이의 격차는 무엇인가?

(2)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여가활동 관련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의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여가활동 관련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도시주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로 한정시킨 이유는 현재 경제적으로 중산층으로 주변의 여가시설을 접하기 쉬운 대상을 수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시의 강남, 강북, 강서, 강동 지역과 수도권(일산, 분당, 인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이며,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40-49세의 중년기 주부로 제한하였다. 질문지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주부가 직접 기입하게 하거나 강남과 강북의 중학교를 2개교를 선정하여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한 후 학부모가 기입하여 학교에 다시 가져오는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10월 11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의 20일간이다. 질문지는 총 330부가 배포되었으며 28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부실 기재된 60부를 제외한 22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조사도구

현재에 활동을 하고 있고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 활동의 참여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김외숙(1991)의 연구를 참고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여가활동을 묻는 문항

은 총 42문항이었으며, 현재와 미래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자기개발적 활동, 가정 지향적 활동, 사회지향적 활동, 사교적 활동, 소일적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응답 유형을 '거의 하지 않는다', '1년에 한두번', '3-4개월에 한두번', '1개월에 한두번', '1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로 구성하여, 6점 리커트 형태로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여가활동에 참여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정 지향적 활동의 1문항과 자기 개발적 활동의 5문항의 경우는 이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5점 척도를 첨가하여 측정하였다. 총 자산은 '1억원 미만', '1억원이상-2억원미만', '2억원이상-3억원미만', '3억원이상-4억원미만', '4억원이상-5억원미만', '5억원이상-6억원미만', '6억원이상'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고, 여가비용은 '10만원 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주 평균 여가시간은 시간과 분을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며, 근린여가시설은 17개 근린시설 중 중복선택을 하게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예비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 4. 자료의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에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총 문항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자기개발적 활동	25	.88
가정지향적활동	9	.78
사회적 활동	2	.69
사교적 활동	2	.72
소일적 활동	4	.69

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여가관련변인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우선 결혼지속 연수를 보면 평균은 15.98년이며 11-20년 사이가 88.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주부의 연령을 보면 평균은 43.4세이며 40-45세 사이가 83.6%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남편의 연령을 보면 평균은 45.02세이며 35-50세 사이가 92.7%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주부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 47.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남편의 교육수준을 보면 대학이상이 54.1%로 가장 많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명)	백분율(%)	변수	집단	빈도(명)	백분율(%)
결혼지속연수	10년이하	6	2.7	방수	2개	47	21.4
	11-20년	195	88.6		3개	133	60.5
	21-30년	19	8.6		4개이상	40	18.1
	평균	15.98년			평균	3.01개	
주부의 연령	40-45세	184	83.6	주거면적	20평이하	40	18.2
	46-50세	36	16.4		21-40평	141	64.1
	평균	43.40세			41평이상	39	17.7
남편의 연령	35-50세	204	92.7	주택소유여부	소유	131	59.5
	51세이상	16	7.3		비소유	89	40.5
주부의 교육수준	평균	45.02세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	11	5.0
	중졸이하	25	11.4		101-300만원	144	65.5
	고졸	104	47.3		301만원 이상	65	29.5
대학이상	91	41.4	평균		309.18만원		
남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6	7.3	총자산	1억원미만	69	31.4
	고졸	85	38.6		1-3억원	93	42.3
주부의 직업유무	대학이상	119	54.1		3-5억원	29	13.2
	비취업	133	60.5		5억원이상	29	13.2
남편의 직업	취업	87	39.5	한달평균 여가지출 비용	10만원이하	106	48.2
	생산직, 고용된 판매, 사무직	78	35.5		11-20만원	57	25.9
	자영업채경영, 자영업상인	82	37.3		21만원이상	57	25.9
	행정, 관리, 전문직	48	21.8	일일평균 여가시간	2시간 이하	147	66.8
기타, 무직	12	5.5	2-3시간		40	18.2	
없음	4	1.8	3시간이상		33	15	
자녀수	없음	4	1.8	평균	2.17시간		
	1명	45	20.5	주당평균 여가시간	5시간 이하	46	20.9
	2명	142	64.5		6-20시간	129	58.6
	3명	29	13.2		21시간 이상	45	20.5
평균	1.89명		평균	14.24시간			
막내자녀 연령	6세이하	7	3.2	근린여가시설	1-6개	65	29.5
	7-13세	55	25.0		7-12개	96	43.6
	14세이상	158	71.8		13-18개	59	26.8
	평균	13.54세			평균	9.55개	



은 수를 차지하였다. 주부의 직업 유무는 비취업이 60.5%, 취업이 39.5%였다.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체 경영, 자영업인이 37.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생산직, 고용된 판매, 사무직이 35.5%, 행정, 관리, 전문직이 21.8%, 기타, 무직이 5.5%를 차지하였다. 자녀수를 보면 평균은 1.89명이었으며, 2명이 64.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막내자녀 연령의 평균은 13.54세로 14세 이상이 71.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방수는 3개인 경우가 60.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주거면적을 보면 평균은 31.64평이며 21-40평 사이가 64.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주택 소유여부는 소유한 경우가 59.5%이고,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40.5%였다. 월평균 소득의 평균은 309.18만원으로 101-300만원 사이가 65.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총자산을 보면 1-3억원이 42.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한달 평균 여가 지출 비용을 보면 10만원 이하가 48.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현아(1999)의 연구에서 부인 전체의 월평균 개인 여가비용이 5.3만원으로 나온 것과 결과를 같이 하고 있다. 일일 평균 여가시간을 보면 평균은 2.17시간으로 2시간 이하가 66.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3시간이 18.2%, 3시간 이상이 15%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현아(1999)의 연구에서 부인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이 200분(약 3.3시간)으로 나온 것과 결과를 달리 하고 있으며 평일 여가시간이 적게 나왔다. 주당 평균 여가시간을 보면 평균은 14.24시간으로 6-20시간이 58.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근린 여가시설을 보면 평균이 9.55개로 7-12개가 43.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 2. 연구 결과 분석

### 1) 여가활동참여의 일반적 경향

#### (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참여빈도는 <표 3>과 같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활동은 가정 지향적 활동으로 나타났는데 4.13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뒤를 이어 사교적 활동(M=3.31), 소일적 활동(M=3.21), 자기 개발적 활동(M=2.48), 사회참여·종교적 활동(M=2.41)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기 개발적 활동 중에서는 신문 읽기(M=5.14)의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음악감상, 독서, 산책, 인터넷 정보이용, 노래부르기, 영화감상의 순이었다. 다음에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가정 지향적 활동을 살펴보면 가족과 대화(M=5.47)의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음식·간식 만들기, 시장 가기, 가족과 놀기, 집안 가꾸기의 순서를 보였다.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 지향적 활동에서는 종교활동(M=2.87)의 참여가 봉사활동(M=1.95)의 참여보다 더 높았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교적 활동에서는 친구·친지·이웃 만나기(M=3.87)의 참여가 계·친목회·동창회(M=2.76)참여보다 더 높았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소일적 활동에서는 휴식(M=4.19)의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낮잠, TV보기, 라디오 청취의 순서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지향적 활동의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가정지향활동이 여가활동으로서 기혼 여성에 있어서는 가사노동과 관련을 갖는 반 여가활동이라는 중요함을 알

<표 3> 현재와 미래의 여가활동 참여

여가활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 활동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 활동		여가활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기 개발적 활동	신문읽기	5.14	1.57	5.16	1.58	가정 지향적 활동	가족과대화	5.47	.89	5.66	.69	
	음악감상	4.14	1.84	4.68	1.69		가족과놀이	4.51	1.48	4.91	1.20	
	독서	4.05	1.67	4.90	1.47		가족과외식	3.83	1.04	4.24	.95	
	조깅	2.76	1.99	4.55	1.85		가족과국내여행	2.08	.97	2.83	1.16	
	수영	1.52	1.26	3.45	2.04		시장가기	4.69	1.06	4.52	1.31	
	골프	1.19	.76	2.55	1.77		백화점쇼핑	3.35	1.38	3.69	1.22	
	헬스	1.81	1.62	3.52	2.10		음악,간식만들기	5.33	1.06	4.89	1.44	
	산책	3.84	1.72	5.13	1.52		집안가꾸기	4.20	1.70	4.29	1.66	
	그림그리기	1.37	1.00	2.58	1.80		야외나들이	3.73	1.18	4.17	1.06	
	서예	1.17	.71	2.85	1.84		계	4.13	.63	4.35	.67	
	악기연주	1.34	1.03	2.43	1.83		사회 참여, 종교적 활동	종교활동	2.87	1.93	3.77	1.94
	꽃꽂이	1.68	1.29	3.02	1.80			사회봉사, 단체참여	1.95	1.42	3.47	1.60
	노래부르기	3.33	1.89	4.10	1.83			계	2.41	1.33	3.62	1.52
	사진촬영	1.08	1.10	2.60	1.56	사교적 활동	계,친목회,동창회	2.76	1.27	3.41	1.19	
	애완동물기르기	1.95	1.91	2.53	2.21		친구,친지, 이웃만남	3.87	1.28	4.16	1.14	
	명상	2.72	1.96	3.85	2.00		계	3.31	1.03	3.79	.96	
	인터넷정보이용	3.69	1.99	4.55	1.68		소일적 활동	TV 시청	3.11	1.30	3.50	1.27
	인터넷,TV 쇼핑	2.82	1.92	3.53	1.88	라디오 청취		2.32	1.74	2.77	1.54	
	외국어학습	2.01	1.69	3.56	2.07	휴식		4.19	1.70	4.85	1.53	
	비디오보기	2.48	1.50	3.45	1.64	낮잠		3.23	1.95	4.16	1.90	
	영화감상	3.02	1.42	3.82	1.40	계		3.21	1.00	3.82	.94	
	전사회관람	2.48	1.37	3.52	1.48							
	운동경기관람	1.75	1.22	2.54	1.40							
	연극관람	1.93	1.13	3.19	1.50							
	음악회참석	1.96	1.17	3.18	1.46							
	계	2.48	.63	3.57	.85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교적, 소일적, 자기 개발적, 사회참여·종교적 활동의 순으로 참여 빈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김외숙(1991)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표 3>과 같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가정 지향적 활동(M=4.35), 소일적 활동(M=3.82), 사교적 활동(M=3.79), 사회 참여·종교적 활동(M=3.62), 자기 개발적 활동(M=3.57)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었다.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자기 개발적 활동에서는 신문 읽기(M=5.16)의 참여가 역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산책, 독서, 음악감상, 조깅, 인터넷 정보이용, 노래부르기, 명상, 영화감상, 외국어 학습, 인터넷 쇼핑, 헬스, 전사회관람, 비디오 보기, 수영, 연극관람, 음악회 참석, 꽃꽂이의 순서를 보였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가정 지향적 활동에서는 가족과의 대화(M=5.66)가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가족과 놀기, 음식 만들기, 시장 가기, 집안 가꾸기, 가족과 외식, 야외 나들이의 순서를 보였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 지향

적 활동에는 종교 활동(M=3.77)이 봉사활동(M=3.47)참여보다 더 높았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사교적 활동에서는 친구·친지·이웃 만나기(M=4.16)의 참여가 계·친목회·동창회(M=3.41)참여보다 더 높았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소일적 활동에서는 휴식(M=4.85)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낮잠, TV보기, 라디오 청취의 순서를 보였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참여도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 지향적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가 가장 높

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일적, 사교적, 사회참여·종교적, 자기 개발적 활동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일적 여가활동에의 참여 욕구가 커지며, 자기 개발적 여가활동에의 참여욕구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격차의 일반적 경향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

<표 4>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미래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격차

단위(%)

여가활동	미래여가활동수준 -현재여가활동 수준					여가활동	미래여가활동수준 -현재여가활동수준						
	격차의 평균		음수값 집단	0의 값 집단	양수값 집단		격차의 평균		음수값 집단	0의 값 집단	양수값 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기 개발 적 활동	신문읽기	.02	1.52	11.4	70.9	17.7	가 정 지 향 적 활 동	가족과대화	.19	.85	12.3	65.5	22.3
	음악감상	.54	1.77	12.3	45.9	41.8		가족과놀이	.40	1.40	16.8	49.1	34.1
	독서	.85	1.56	6.4	38.6	55		가족과의식	.41	1.11	10	53.2	36.8
	조깅	1.79	2.31	7.3	32.7	60		가족과 국내여행	.75	1.22	8.2	37.3	54.5
	수영	1.93	2.05	3.6	41.4	55		시장가기	-.17	1.20	22.3	59.5	18.2
	골프	1.36	1.69	.5	52.3	47.3		백화점쇼핑	.34	1.30	15	46.8	38.2
	헬스	1.71	2.15	4.1	47.7	48.2		음식, 간식만들기	-.45	1.47	35.5	50.9	13.6
	산책	1.29	1.92	9.1	25.9	65		집안가꾸기	.10	1.78	24.5	42.3	33.2
	그림그리기	1.21	1.67	3.6	50.9	45.5		야외나들이	.44	1.20	11.4	50	38.6
	서예	1.67	1.82	1.4	42.7	55.9		계	.22	.62	25.9	13.6	60.5
	악기연주	1.09	1.74	3.2	58.2	38.6	사 회 참 여, 종 교 적 활 동	종교활동	.90	1.71	6.8	50.5	42.7
	꽃꽂이	1.34	1.95	8.6	36.4	55		사회봉사, 단체참여	1.52	1.74	5.5	31.8	62.7
	노래부르기	.77	1.90	12.7	39.1	48.2		계	1.21	1.40	8.2	19.5	72.3
	사진촬영	.80	1.53	7.7	46.4	45.9	사 교 적 활 동	계,친목회, 동창회	.65	1.30	7.7	48.6	43.6
	애완동물기르기	.58	2.07	5.9	74.1	20		친구,친지, 이웃만남	.30	1.07	17.7	46.8	35.5
	명상	1.13	1.98	8.6	37.3	54.1		계	.48	.93	17.3	30	52.7
	인터넷정보이용	.85	1.82	11.8	44.5	43.6	소 일 적 활 동	TV 시청	.39	1.16	13.6	49.5	36.8
	인터넷,TV 쇼핑	.71	1.74	13.2	45.5	41.4		라디오 청취	.45	1.57	11.4	45	43.6
	외국어학습	1.55	2.13	4.5	44.5	50.9		휴식	.66	1.75	12.7	42.7	44.5
	비디오보기	.98	1.81	13.2	35.9	50.9		낮잠	.93	2.22	10	47.7	42.3
영화감상	.80	1.54	10.5	40	49.5	계		.61	1.03	18.6	13.6	67.8	
전시회관람	1.04	1.57	8.6	36.8	54.5								
운동경기관람	.80	1.56	9.5	47.7	42.7								
연극관람	1.26	1.43	4.1	36.8	59.1								
음악회참석	1.21	1.44	5.5	34.1	60.5								
계	1.09	.77	8.2	.5	91.3								

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빈도를 빼어서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뺀 값을 음수의 점수 값을 갖는 여가활동과 0의 점수 값을 갖는 여가 활동, 양수의 점수 값을 갖는 여가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음수의 값을 갖는 여가활동은 현재 보다 미래에 하고 참여하고 싶은 정도가 적고, 0의 값을 갖는 여가 활동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이고, 양수의 값을 갖는 여가활동은 현재 보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가 높은 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먼저 자기 개발적 활동을 살펴보면 조깅이 1.79점으로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활동과 현재 참여하는 활동사이의 격차가 가장 큰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가활동 참여 격차에 대한 평균값이 양수 값을 보이는데 이는 미래에는 대부분 여가활동에 더욱더 참여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 지향적 활동을 살펴보면 가족과 국내 여행이 0.75점으로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활동과 현재 참여하는 활동사이의 격차가 가장 큰 활동으로 나타났다. 시장 가기는 -1.7점, 음식·간식 만들기는 -0.45점의 음수 값을 가져 현재보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가 적은 활동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종교적 활동을 살펴보면 사회봉사·단체참여가 1.52점으로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활동과 현재 참여하는 활동사이의 격차가 가장 큰 활동으로 나타났다. 사교적 활동을 살펴보면 계·친목회·동창회, 소일적 활동이 0.65점으로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활동과 현재 참여하는 활동사이의 격차가 가장 큰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를 양수 값을 갖는 활동, 0의 값을 갖는

활동, 음수 값을 갖는 활동의 분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여가 활동 참여의 경우 0의 값과 양수 값을 갖는 비율이 높았다. 양수 값의 비율이 특히 높은 여가 활동들 즉, 현재 보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가 높은 여가 활동들은 독서(55%), 조깅(60%), 수영(55%), 산책(65%), 꽃꽂이(55%), 노래부르기(48.2%), 명상(54.1%), 비디오보기(50.9%), 영화감상(49.5%), 전시회관람(54.5%), 연극관람(59.1%), 음악회참석(60.5%), 가족과 국내 여행(54.5%), 사회봉사·단체참여(62.7%)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수 값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여가 활동들 즉, 현재 보다 미래에 하고 싶은 정도가 적은 여가활동들은 시장가기(22.3%), 음식·간식 만들기(35.5%), 집안가꾸기(24.5%)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여가 활동 참여로 볼 때, 자기 개발적 활동은 양수 값을 갖는 활동들이 91.3%로 나타나 이에 속하는 여가 활동들은 현재 보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음수 값을 갖는 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가정 지향적 활동(25.9%)이며, 0의 값을 갖는 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사교적 활동(30%)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미래에 참여 하고 싶은 정도가 큰 활동은 자기 개발적 활동에 속한 여가활동이며, 현재보다 미래에 참여를 덜 하고 싶은 여가활동들은 가정지향적 활동에 속한 여가활동이고,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참여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사교적 활동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여가활동 관련 변인

중 어떤 변인이 자기 개발적, 가정 지향적, 사회 지향적, 사교적, 소일적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로 각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가정의 충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잔차간의 자기상관여부를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Durbin-Watson 테스트를 한 결과 지수가 1.54 이상이 나타나 회귀가정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알아본 결과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혼 지속연수와 주부의 연령, 남편의 연령에서는 단순회귀 분석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결혼지속연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동일한 방식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 남편의 학력, 자녀수, 월평균

소득, 주거면적, 일일 평균 여가시간을 제외시키고 결과적으로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독립변인으로는 결혼지속연수, 남편직업,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 유무, 막내자녀 연령, 총자산, 방수, 주택 소유여부, 월평균 여가비용, 주 평균 여가시간, 근린여가시설이 채택 되었다. 독립변인 중 명목변인인 남편 직업의 경우 무직·기타를 기준 변수로 하고, 행정·관리·전문직을 남편의 직업1, 자영업체 경영·자영상인을 남편의 직업2, 생산직·고용된 판매·사무직을 남편의 직업3으로, 주부의 직업 유무는 없는 경우를 0으로, 주택 소유여부는 자가 아닌 경우를 0으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분석 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여가활동 관련 변인 둘로 나누어 분석 한 이유는 같은 회귀식 하에서의 상대적인 영향력보다 이원화 시켜서 분석한 결과 더 유의미한 결과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립변인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여가활동 관련변인으로 나누어

<표 5>현재의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변인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자기개발적		가정지향적		사회지향적		사교적		소일적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결혼지속연수	-.02	-.10	-.03	-.14	-.02	-.04	.02	.06	.01	.03
남편의 직업1	.36	.23	.18	.12	1.18	.37 **	.77	.31 *	.03	.01
남편의 직업2	.21	.16	.34	.26	.95	.35 *	.79	.37 *	-.12	-.06
남편의 직업3	.18	.13	.31	.24	.74	.27	.61	.28	.02	.01
주부의 학력	.17	.32 ***	.12	.23 **	-.02	-.02	-.15	-.17 *	-.06	-.07
주부의 직업	-.11	-.08	-.25	-.20 ***	-.01	.00	-.42	-.20 **	-.28	-.14
막내자녀연령	.02	.07	.04	.15 *	.08	.15 *	.07	.16 *	.06	.16
총자산	.03	.08	.06	.16 *	-.09	-.12	.00	.00	.05	.09
방수	.08	.11	.02	.03	.13	.08	.01	.01	-.02	-.02
주택소유여부	.03	.02	-.06	-.05	.10	.04	-.22	-.10	-.08	-.04
상수	1.39		3.36		.79		2.59		2.84	
표준화된 R <sup>2</sup>	.25		.19		.07		.12		.07	
F	6.86***		5.00***		1.46		2.97**		1.44	

\*p <.05 \*\*p <.01 \*\*\*p <.001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현재의 자기 개발적 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학력( $\beta=.32$ )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25%였다. 이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자기 개발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 개발적 활동을 많이 참여한다는 홍성희(1991)와 이정우(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가정 지향적 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학력( $\beta=.23$ ), 주부의 직업( $\beta=-.20$ ), 총자산( $\beta=.16$ ), 막내자녀 연령( $\beta=.15$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19%였다. 이것은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가 비취업일수록, 총자산이 많을수록, 막내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현재 가정 지향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사교적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직업유형( $\beta=.37, \beta=.31$ ), 주부의 직업유무( $\beta=-.20$ ), 주부의 학력( $\beta=-.17$ ), 막내자녀 연령( $\beta=.16$ )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2%였다. 이것은 남편의 직업이 무직에 비해 자영업체

경영·자영상인과 생산직·고용된 판매·사무직일때, 주부가 비취업이고,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사교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사회지향적 활동과 소일적 활동의 회귀식은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 관련변인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현재의 자기 개발적 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근린 여가시설( $\beta=.22$ )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8%였다. 이것은 근린여가시설이 많을수록 현재 자기 개발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가정 지향적 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가비용( $\beta=.23$ ), 주 평균 여가시간( $\beta=.17$ ), 근린여가시설( $\beta=.14$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설명력은 12%였다. 이것은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주 평균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근린여가시설이 많을수록 현재 가정 지향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사회지향적 활동, 사교적 활동과 소일적 활동의 회귀식은 유의하지 않았다.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1997)의 연구에서는

<표 6> 현재의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관련변인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자기개발적		가정지향적		사회지향적		사교적		소일적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여가비용	.07	.11	.14	.23***	.07	.06	-.03	-.03	.02	.02
주평균여가시간	.01	.09	.01	.17*	.01	.06	.02	.16*	.02	.15*
근린여가시설	.03	.22***	.02	.14*	-.02	-.05	.02	.07	.01	.02
상수	2.0		3.5		2.31		2.98		2.91	
표준화된 R <sup>2</sup>	.08		.12		.01		.03		.03	
F	6.09***		9.96***		.77		2.43		1.99	

\*p <.05 \*\*p <.01 \*\*\*p <.001

여가비용이 적을수록 소일활동에,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자기개발활동에 많이 참여한다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변인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40대 주부들은 남편의 직업이 무직·기타보다 자영업체 경영·자영상인, 생산직·고용된 판매·사무직일때 사교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개발적, 가정 지향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자신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교적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부가 비취업이고,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 지향적, 사교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총자산이 많을수록 가정지향적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40대 주부가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개발적, 가정 지향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는 것은 교육기회가 많은 주부가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선미(1991)와 이정우(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여가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린여가시설이 많을수록 자기개발 여가활동과 가정지향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며, 여가 비용과 여가시간이 많게 되면 가정지향 여가활동의 참여율이 높아진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아파트 근처의 근린여가 시설의 이용가능성이 높아질 때, 40대 주부들은 이러한 시설을 자신을 개발하는데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가비용과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가정 지향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는 것은 40대 주부들이 가족과의 여행, 외식, 시장보기, 백화점 쇼핑등 중년기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가족과 함께 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년기에 감소된 가사노동 부담으로 여가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친구나 이웃을 만나 친목을 도모하거나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휴식 등에 보낸다고 볼 수 있다.

(2)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미래의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변인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자기개발적		가정지향적		사회지향적		사교적		소일적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결혼지속연수	-.01	-.04	-.01	-.04	-.08	-.15*	-.01	-.04	-.01	-.03
남편의 직업1	.27	.13	.07	.04	.77	.21	.50	.22	-.08	-.04
남편의 직업2	.41	.24	.25	.18	1.12	.36*	.69	.35*	.23	.12
남편의 직업3	.29	.17	.19	.14	.47	.15	.64	.32*	.18	.09
주부의 학력	.21	.29***	.08	.15	.08	.07	.01	.02	.00	.00
주부의 직업	.08	.05	-.05	-.04	.13	.04	-.38	-.20**	-.07	-.04
막내자녀 연령	.02	.06	.02	.09	.10	.17*	.05	.13	.08	.21**
총자산	-.05	-.12	.01	.02	-.08	-.10	.05	.09	.03	.07
방수	.14	.14	-.05	-.06	-.12	-.06	-.04	-.03	.02	.01
소유여부	.18	.11	-.02	-.02	.14	.04	.21	.11	.26	.14
상수	1.67		3.85		2.67		3.11		2.58	
표준화된 R <sup>2</sup>	.14		.03		.09		.10		.08	
F	3.27***		.73		2.12*		2.22*		1.80	

\*p <.05 \*\*p <.01 \*\*\*p <.001

미래의 자기 개발적 여가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학력( $\beta = .29$ )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인의 설명력은 14%였다. 이것은 주부학력이 높을수록 미래에 자기 개발적 여가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사회 지향적 여가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직업유형( $\beta = .36$ ), 막내자녀 연령( $\beta = .17$ ), 결혼지속 연수( $\beta = -.15$ )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9%였다. 이것은 남편의 직업이 무직·기타보다 자영업체 경영·자영상인이고, 막내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 지

미래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 관련변인은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미래의 자기 개발적 여가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근린여가시설( $\beta = .19$ )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인의 설명력은 4%였다. 이것은 근린 여가시설이 많을수록 미래에 자기 개발적 여가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가정 지향적 여가활동, 사회 지향적 여가활동과 사교적 여가활동의 회귀식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변인 중심으로 살펴보면 결혼지속연수가 짧을수록 미래에 사회 지향적

<표 8> 미래의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 관련변인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자기개발적		가정지향적		사회지향적		사교적		소일적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여가비용	.02	.02	.02	.03	-.18	-.12	-.07	-.08	-.02	-.03
주평균여가시간	.00	.04	.00	.03	.01	.03	.01	.11	.02	.19**
근린여가시설	.04	.19**	.01	.09	.03	.10	.02	.10	.00	.00
상수	3.1		4.2		3.57		3.56		3.62	
표준화된 R <sup>2</sup>	.04		.01		.02		.03		.04	
F	3.17*		.75		1.72		1.96		2.58	

\*p <.05 \*\*p <.01 \*\*\*p <.001

속연수가 적을수록 미래에 사회 지향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사교적 여가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직업 유형( $\beta = .35, \beta = .32$ ), 주부의 직업유무( $\beta = -.20$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의 설명력은 10%였다. 이것은 남편의 직업이 무직·기타보다 자영업체 경영·자영상인과 생산직·고용된판매·사무직일 때, 주부가 비취업일 때, 미래에 사교적 여가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가정 지향적 여가활동과 소일적 여가활동의 회귀식은 유의하지 않았다.

여가활동 참여를 원하였고, 남편의 직업이 자영업체 경영·자영상인일 때, 미래에 사회 지향적, 사교적 여가활동에 참여 하고 싶어 하였으며,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미래에 자기 개발적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였다. 직업이 없는 주부가 미래에 사교적 여가활동의 참여를 원하였으며, 막내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미래에 사회 지향적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였다. 이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기 개발을 위한 여가 활동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비취업 주부가 미래에 친구나



이웃을 만나는 사교적 여가활동을 원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가관련 변인 중심으로 보면, 근린여가 시설이 많을수록 미래에도 자기개발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 중년기 이후 주부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할 때, 주거지 근처의 여가관련 시설의 확충은 주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부들이 다양한 여가 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가관련 정책의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중년기 이후의 증가된 여가 시간을 휴식이나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에 보내는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설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여가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가정 지향적 활동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교적 활동, 소일적 활동, 자기 개발적 활동, 사회참여·종교적 활동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 활동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기 개발적 활동에서는 신문 읽기를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가정 지향적 활동에서는 가족과 대화를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 지향적 활동에서는 종교 활동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사교적 활동에서는 친구·친지·이웃 만나기를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소일적 활동에서는 휴식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의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 활동에서는 가정 지향적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일적 활동, 사교적 활동, 사회 참여·종교적 활동, 자기 개발적 활동의 순이었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자기 개발적 활동에서는 신문 읽기를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였고, 가정 지향적 활동에서는 가족과의 대화를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였다. 사회 지향적 활동에는 종교 활동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어 했으며, 사교적 활동에서는 친구·친지·이웃 만나기를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였다. 소일적 활동에서는 휴식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미래에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격차를 살펴보면 자기 개발적 활동, 가정 지향적 활동, 사회참여·종교적 활동, 사교적 활동, 소일적 활동 모두 현재 보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래에 자기 개발적 활동 참여를 원하는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보다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가 큰 활동들은 조깅, 수영, 골프, 헬스, 서예, 가족과 국내 여행, 사회봉사·단체참여였으며, 현재 보다 미래에 하고 싶은 정도가 약한 활동들은 시장 가기, 음식·간식 만들기, 집안 가꾸기로 나타났다.

셋째,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의 현재

여가활동참여와 미래의 여가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현재의 여가활동참여에서는 남편의 직업,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 막내자녀연령, 총자산, 여가비용, 주평균 여가시간, 근린여가시설이었다. 남편의 직업이 기타·무직이 아닐수록 사교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였다.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 개발적 활동과 가정 지향적 활동을, 학력이 낮을수록 사교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였다. 비취업 주부가 가정 지향적 활동과 사교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가정 지향적, 사교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였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가정 지향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였다.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주평균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근린여가시설이 많을수록 가정 지향적 활동에 많이 참여하였다.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의 미래의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결혼지속연수, 남편의 직업,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 막내자녀 연령, 근린여가시설이었다. 결혼지속연수가 적을수록 사회 지향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였다. 남편의 직업이 기타·무직이 아닐수록 사회 지향적, 사교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였다.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 개발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였고, 비취업 주부가 사교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였다. 막내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 지향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였다. 근린여가시설이 많을수록 자기 개발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의 여가활동참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중년기 주부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 미래에 참여하고 싶

어 하는 여가활동은 신문 읽기, 가족과 대화, 종교 활동, 친구·친지·이웃 만나기, 휴식활동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미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여가활동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40대 중년기 주부는 미래에도 현재에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40대 중년기 주부는 현재의 여가 활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40대 중년기 주부에게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 활동들을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가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가 가장 큰 여가 활동들인 독서, 운동, 노래부르기, 비디오·영화감상, 여행, 사회봉사·단체참여 등을 위하여 아파트 주변에 책 대여점,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대형 스포츠 센터, 산책을 위한 공원 조성 등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가 적은 시장 가기, 음식 만들기, 집안 가꾸기 등을 위하여 집에서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쇼핑과 같은 시스템의 확충, 집안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구들의 개발,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남편의 직업유형,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유무, 막내자녀 연령, 근린여가시설, 여가비용, 여가 시간 등은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의 현재와 미래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40대 주부들의 현재와 미래의 여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교육의 확대, 취업주부를 위한 직장에서의 여가활용 시설 및 설비의 보완과 유급 휴가의 확대, 자기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여가 시설의 확충, 증가된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주부들이 주위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TV, 라디오, 인터넷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토대로 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수의 문제로 인하여 본 연구 결과가 전체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의 여가활동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의 미래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시점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막연할 수 있다. 따라서 5년 후, 10년 후와 같은 확실한 기간을 제시하여 미래 여가활동을 연구한다면 앞으로의 여가 산업을 예측한다든지, 정책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 주부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사회인구학적, 여가활동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파트 이외에 거주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의 여가활동 참여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흥미 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 40대 도시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폭 넓은 중년기 주부, 중년기 남성, 부부 대상, 가족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대상에 따른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1) 김명자 (1993). 중년기 연구. 서울 : 교문사

- 2) 김외숙 (1977). 가족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_\_\_\_\_ (1991). 도시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_\_\_\_\_ (1993). 도시 기혼여성의 여가장애 지각과 여가활동 참여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1(2).
- 5) 김외숙·이기춘 (1992). 도시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 6) 이선미 (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 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7) 이현주 (1985). 주부의 여가활동 유형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8) 임정빈 외 7인 (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 실태와 문제(Ⅲ) : 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29-142.
- 9) 유지명·김명자(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4(3), 151-165.
- 10) 조희금 (1993). 생산적 기혼여성의 생활 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01-112.
- 11) 차주은 (1995). 주부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 참여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홍성희 (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_\_\_\_\_ (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3.
- 14) 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5). 국민 여가 생활의 실태 분석과 대책. 한국관광공사.

- 15) 조선일보. 2002, 10, 11
- 16) 祖父江孝男 (1974). 人間 とレジャー .東京 : 日本經濟新聞社.
- 17) Brightbill, C. (1961). Man and leisur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18)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 Jossey-Bass.
- 19) De Grazia (1962). Of time, work and leisure. New York : Twentieth Century Fund.
- 20) Dumazedier, J. (1974).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 Elsevier.
- 21) Kaplan, M. (1960). Leisure in America : A social inquiry. New York : Double day.
- 22) Lee, Y. (1999). Toward a globalization of leisure research. The '99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proceedings, 971-983.
- 23) Lamme, L. L. and A. L. I I I.(1979). Patterns of children's pla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 253-270.
- 24) Parker, S. (1972).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New York, NY : Praeger.  
(1975). The sociology of leisure. ternational Publications Service.
- 25) Ragheb, M. G. (1980). Interrelationship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138-149.
- 26) Roberts, J. M. and R. S. Cospers. (1987). Variation in strategic involvement in games for three occup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9, 131-148.
- 27) White, T.H.(1975). The relative importace of education and income as predictors in outdoor & recreation pari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7, 191-199.